

경남도, 마리나·요트·해수욕장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이양
국내외 해양스포츠대회 유치
26개 해수욕장 개장 준비 분주

경남도는 여름여행 성수기에 남해안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요트계류장 등 전국 최대 보유 마리나 시설과 해수욕장 등 해양레저 활동 기반시설 안전과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아웃도어 해양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규 관광 상품 개발 지원과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5월 1일부터 선박 대여, 계류, 정비 등 마리나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해양레저 관련 민원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도는 강조했다.

현재 경남은 전국 71개 마리나 시설 중 가장 많은 2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마리나 업체는 64곳으로 전국 2위 규모다. 등록된 레저 선박도 6000척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경남도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이 남해 해양관광 활성화 주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마리나업 등록 및 관리 권한 이양을 계기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해양레저산업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마리나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해양스포츠대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6월에는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열린다. 대회는 경남 통영에서 개막해 부산 해운대와 전남

여수를 잇는 해상 코스에서 진행하며,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과 해양레저 환경을 전 세계에 알린다.

11월에는 통영에서 '제19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열리고, 내년 4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가 통영을 아시아 기항지로 삼아 전 세계 해양탐험가들이 남해안을 찾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26개 해수욕장 개장도 준비 중이다. 7월 1일 창원 광암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하며 개장 전

까지 수질, 토양, 방사능 검사 등 철저한 안전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도는 해양레저 콘텐츠 확충을 위해 섬 관광 활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6월 완료를 목표로 남해안권 7개 시·군과 함께 '경남 섬 관광개발 계획'을 공동 수립 중이다.

도는 여름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6월 시·군과 함께 현장 홍보 마케팅을 전개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 경남의 주요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고, 숙박·관광지 할인 정보, 추천 여행지를 제공하는 팝업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광판과 사회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수도권 관광객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관광기업의 해양관광 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도 5월 중 진행한다. 앞서 경남도는 엑스크루 플랫폼을 통해 4월부터 11월까지 아웃도어 해양관광 상품을 출시하며 해양관광 붐 조성에 나섰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조직개편으로 효율성 높인다

울산시는 소규모 조직과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업무 연계성이 높은 부서와 통폐합하고, 소방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기획조정실 내 국가예산담당관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해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행정국 내 시민생활정책추진단을 자치행정과로 통폐합해 'OK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 주요 단체 관리 등 시민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동물보호의 날' 행사 유치

부산시는 '동물보호의 날'(10월4일)을 기념해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물보호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행사로, 올해 1월 개최지 공모에 시와 제주도, 경주시 등이 신청해 경쟁을 벌였다.

농림부는 3개 도시 중 개최지 상징성, 타 지역 접근성, 지자체의 동물복지분야 관심도 등을 고려해 행사 개최지로 부산시를 최종 결정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진주시

'제8기 시민명예기자' 모집

경남 진주시는 8일부터 16일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시정을 널리 알릴 '제8기 진주시 시민명예기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지원 자격은 19세 이상 진주시민 또는 진주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다. 이 중 문예창작 관련 전공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거나, 기사 작성 및 온라인 게시가 가능하거나, 월 1회 이상 성실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단 현직 기자와 리포터는 제외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대구시

오늘부터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대구시는 8일부터 열흘간 대구 전역에서 판타지아대구페스타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판타지아페스타는 대구 축제 통합 브랜드로 지역 곳곳에 총 11개 봄 맛이 축제를 준비했다.

8일부터 11일까지 약령시에서 한방문화 축제가 진행되고 10일부터 11일까지 국제보상로 일대에서 124팀의 퍼레이드, 97개의 거리공연이 펼쳐지는 파워풀 대구페스티벌이 개최된다. 9일과 11일에는 동성로축제, 10일부터 2일간은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생활문화제가 열린다.

코오롱 아와음악당에서는 귀를 사로잡는 공연이 펼쳐진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광주시, 차세대 배전망 실증도시 선정

나주서 신뢰성 실증테스트 수행
4년간 총 사업비 690억 투입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인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AC(교류·Alternating Current)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극성(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이며 DC(직류·Direct Current)는 시간에 따라 흐르는 극성이 변하지 않는 전류이다.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광주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에 차세대 배전망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근의 나주지역에 실제 배전망을 활용해 신뢰성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690억원이 올해부터 4년간 투입된다.

테스트베드 구축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와 한국전력, 한전KDN,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10개 기관·대학이 참여한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한국전기연구원 부지에 지중 및 가공을 혼합한 AC/DC 배전망을 구축하고 배전기기, 운영기술,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해 전력 신기술·기기의 계측·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나주에는 기존 AC배전망을 DC배전망으로 전환해 현장 운영기술과 신뢰성 검증이 이뤄지며 사업 종료 후에는 광주와 나주 모두 실증 인프라로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테스트베드 사업을 기반으로 광주를 국가 배전기술 실증 및 상용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실증 인프라를 발전시켜 시험·인증 기능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모집

올해부터 신청기준 완화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을 오는 21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인증제는 전남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해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총 50개 향토기업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0개 사 안팎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업력 20년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었으나 업력 15년 이상 상시근



전남도가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을 선정한다.

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평가는 업력·매출성장률 등 경제적 기여와 사회 공헌·직원 복지 등 사회적 기여, 2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총 10개 기업이 선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봉화군, '베트남 테마 관광지' 조성

5년간 총 120억 투입

경상북도 봉화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국책사업에서 봉화군은 경북 대표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관광개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단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봉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20억원을 투입해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관광개발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봉트남(봉화+베트남)'이라는 테마 브랜드다. 국내 유일의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 일원을 중심으로 베트남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관광 상품 개발 및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 스마트그린산단 3개 사업 추진

글로벌 탄소규제 선제 대응

경남도가 2025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에서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물류플랫폼 사업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 스마트에너지플랫폼 통합운영센터 구축(TOC+) 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들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주관해

사전 스마트그린산단에서 추진된다.

특히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와 연계한 TOC+ 사업은 기존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센서·비전 기술을 적용한 실증 사업장에서 에너지, 탄소 배출량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기록하고 이 데이터를 진단·분석하는 통합 운영센터를 구축한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